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이은연^{1*}, 손경희²

¹동명대학교 간호학과, ²동의대학교 간호학과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with job stress in nursing

Eun-Yeon Lee^{1*}, Kyung-Hee Shon²

¹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onggeu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측정도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고 향후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직무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64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였으며, 전체 연구의 73.4%는 조사연구, 14.1%는 상관관계연구 그리고 4.7%는 실험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간호사였고 그 중 60.9%는 임상간호사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는 임상간호사였으며,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조사연구를 통해 주로 연구되고 있었다.

• **Key Words** : 직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호, 연구동향, 분석

Abstract At the threshold of a convergence age, this study aims to facilitate a new understanding of a job stress measure and the causes of job stress to steer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on this topic, and to examine research trends relating to job stress in the country. To this end, in this study, 64 research papers related to job stress and published between 1995 and 2015 were selected.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was found for the period between 2010 and 2015, following analysis of the date of the research. In total, 73.4%, 14.1%, and 4.7% of the studies comprised survey,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research,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were nurses; 60.9% were hospital nurses.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were conducted on hospital nurses. Job stress was mainly studied through survey designs, as shown by an analysis of the study methods used.

• **Key Words** : Job stress, Work stress, Nursing, Research trends, Analysis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서 개인의 욕구나 능력 및 성격이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하는데[1],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는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 직무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2].

1930년대 이후부터 심리학 및 경영학 분야에 축적된 연구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과는 물론 조직 효과성을 낮추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교신저자 : 이은연(eylee@tu.ac.kr)

접수일 2015년 3월 22일

수정일 2015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0일

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3]. 국내에서는 구미옥과 김매자가 1984년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4] 대인관계, 직무환경, 간호업무, 병동관리 및 병원행정 뿐만 아니라 업무자율성과 조직문화를 포함하는 영역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내용을 삽입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루었고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인사 분야 및 작업장 건강 문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5].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건강상태로서 개인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고 또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업관련 특성과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혼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6]. 따라서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간호관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며,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국내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미비한 상태이다. 간호사이외에도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을 개별화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활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적절한 측정도구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중재를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간호업무 역시 IT환경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직무에 따라 대상자가 호소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동향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게 하여 국내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을 대상으로 간호학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활용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간호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논문의 현황을 파악한다.
- 2) 직무스트레스 관련 측정도구를 파악한다.
- 3) 직무스트레스 관련 개념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활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간되는 9종의 간호학회지(대한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검색은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한국간호과학회 논문검색엔진(<http://www.kan.or.kr/>), 학술정보연구서비스(<http://www.riss.kr/>)를 통하여 검색하였으며 주요핵심어(Key words)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업무스트레스(work stress)’, ‘Occupational stress’ 등을 포함한 문헌을 검색하였다. 총 6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질적연구(2편), 문헌분석(2편) 총 4편을 제외한 64편 논문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최종 대상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7, 8]의 틀을 참고하여 수정·적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도별 :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 2)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 :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간되는 9종의 간호학회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 3) 연구 설계 : 조사연구, 상관관계연구, 유사실험연구, 도구개발, 중재개발, 모형개발로 분류하였다.
- 4) 연구 대상자 : 간호사군과 비간호사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목록화하였다.
- 5) 측정도구 선정 :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만을 분석하였다.
- 6) 연구 측정도구 유형 및 신뢰도 : 유형은 제작자 별로 그리고 신뢰도는 제시 유무로, 신뢰도 계수는 0.7 미만, 0.7-0.8 미만, 0.8-0.9 미만, 0.9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 7) 주요 핵심어 : 논문 제목에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용어를 구분하였다.
- 8) 중재기법 : 간호중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술지별 연구경향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간되는 9종의 간호학회지에서 최근 20년간 발표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Table 1>과 같다. 연도별로는 2010년 이후 발표된 연구가 43.8%였으며, 게재지에 따라서는 간호행정학회가 30편(46.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산업보건의료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 2004년까지 국내·외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관리 중재에 대한 연구를 분석했던 선행연구[7]에서는 5년마다 4편 이상의 중재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관련 논문이 국내 간호학계의 주요 학회지에 발표되고 사례가 최근 5년간 더욱 증가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간호학계의 높은 관심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의 국내 연구에서 5년간 학회지 발표 논문이 6편(9.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본다면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A criteria for analysis depending on journals

Journals	(n=64)				All
	'95 ~ '99	'00 ~ '04	'05 ~ '09	'10 ~ '14	
Korean Academy of Nursing	2	3	2	1	8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	5	7	16	30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	1	-	1	2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	-	-	-	0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	-	-	2	2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	-	-	-	0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	1	-	-	1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	1	1	6	8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	3	6	2	13
All	6	14	16	28	64

3.2 연구대상자에 따른 연구 설계

연구방법은 <Table 2>와 같이 조사연구가 47편(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관계연구 9편(14.1%), 유사실험연구 3편(4.7%)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사에 대한 연구가 50편(78.1%)으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가 39편(6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간호사군에 대한 연구는 14편(21.9%)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가 8편(12.5%)이었다.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시작된 이후 꾸준한 연구대상자 그룹은 간호업무 별로 구체화 되고 있으며 가정전문간호사(3편), 감염관리간호사(2편)에 이어 응급실·중환자실·프리셉터·복지관·심사간호사 및 보건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따라 특수 부서인 경우에는 간호업무 이외에도 행정 및 규정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직무 갈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간호학에서 특수 분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는 특수 분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비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연구가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 중재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군이외에 사무직 근로자에 대

<Table 2> A criteria for analysis depending on research participants

(n=64)

Study design	Nurse									Non-nurse					All
	Hospital	Home Health care	Emergency Room	Infection Control	Intensive care unit	Preceptor	Welfare center	Medical insurance	School Teachers	Industrial worker	Firefighters	Care Workers	Disabled	School Teachers	
survey	28	2	1	1	1	1	1	1	1	6	2	1	-	1	47
correlation	7	-	-	-	-	-	-	-	-	1	-	-	1	-	9
experiment	1	-	-	-	-	-	-	-	-	1	1	-	-	-	3
instrument development	-	1	-	1	-	-	-	-	-	-	-	-	-	-	2
intervention development	1	-	-	-	-	-	-	-	-	-	-	-	-	-	1
structural modeling	2	-	-	-	-	-	-	-	-	-	-	-	-	-	2
All	39	3	1	2	1	1	1	1	1	8	3	1	1	1	64

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결과[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비간호사군에서 사업장 근로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연구 대상자는 생활지도원, 장애인, 학교교사에 그쳤다. 사회 및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전문 직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선하여 나아가 직무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3.3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활용

본 연구의 대상논문에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의 활용은 <Table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 총 64 중 구미옥과 김매자의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10편(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세원 외(2005)의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form)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기본형과 단축형으로 2005년에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군에 상관없이 기본형보다는 단축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사용빈도가 간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KOSS-SF은 KOSS-FV에 비해 항목 개수가 적어 측정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기본형에서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관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도구 선택과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Table 3> A criteria for analysis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tool (n=64)

Measurement Tool (ABC)	All
CHN-PWRSQ* : Walcott-McQuigg (1992)	1
JCQ† : Karasek (1985)	3
Job stress : Parker & Decotiis (1983)	4
K-OSI‡ : Lee et al(1999)	2
KOSS-FV§ : Chang et al(2005)	2
KOSS-SF : Chang et al(2005)	9
NIOSH¶	3
NSS# : Gray-Toft & Anderson(1981)	2
Occupational stress : Ivancevich(1982)	1
Role conflict and ambiguity : Rizzo et al(1970)	3
Work stress : Gu & Kim(1984)	10
Others	18
Self-developed	6
All	64

*CHN-PWRSQ=Community Health Nurses Perceptions of Work-Related Stressors Questionnaire); †JCQ(Job Content Questionnaire); ‡K-OSI=Korean Version of Occupational Stress Inventory; §KOSS-FV=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ull-version;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form;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SS(Nursing Stress Scale)

이 외에도 Parker & Decotiis(1983) 4편(6.3%), Karasek (1985) 및 Rizzo et al(1970) 그리고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3편(4.7%)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영역은 4-15개의 영역을 나타냈으며, 도구의 신뢰도 측정에는 대부분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였다. 특히 NSS(Nursing Stress Scale)는 2편의 연구에

(Table 4) Research on analysis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tool

Measurement Tool (ABC)	N	Item	Area	Detailed contents	Evaluation	Reliability
KOSS-FV [†] : Chang et al(2005)	2	43	8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Likert Scale(4) score(43-172)	0.7-0.9 ↓
KOSS-SF [‡] : Chang et al(2005)	9	24	7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Likert Scale(4) score(24-96)	0.7-0.9 ↑
NSS [§] : Gray-Toft & Anderson(1981)	2	34	6	Work overload, Problem in personal relationships, Dealing with death and dying patients, Difficulty in patient care, Inadequate preparation, Lack of support	Likert Scale(4) score(0-102)	0.9 ↑
Role conflict and ambiguity: Rizzo et al(1970)	3	16	4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Work overload, Lack of support	Likert Scale(5) score(16-80)	0.7-0.9 ↓
Work stress: Gu & Kim(1984)	10	63	15	Work overload, Role conflict, lack of knowledge, Problem in 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with physician, psychological burden, Inappropriate reception, Conflict with superior, Lack of reward, Conflict with subordinate, Physical environment, Responsibility of nonoccupational, Unfamiliar situations, Night shift	Likert Scale(5) score(63-315)	0.8-0.9 ↑

*JCQ(Job Content Questionnaire); [†]KOSS-FV=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ull-version;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form; [§]NSS(Nursing Stress Scale)

서 0.9이상의 높은 신뢰도 계수 값을 나타내었으나, 국외에서 개발된 논문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상의 오류나 문화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대상자에 맞는 또는 직업군에 적합한 특성화된 도구의 사용을 격려하여 정확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측정,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된 측정도구별 영역과 신뢰도 계수의 분포는 <Table 4>와 같다.

3.4 직무스트레스 개념 및 관련요인

직무스트레스 개념 및 관련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논문 제목에 사용된 스트레스 용어는 'job stress'가 53편(82.8%)으로 가장 많았고, 'stress'와 'work stress'가 각각 4편(6.3%)이었으며, 그 다음이 'occupational stress' 순이었다. 이외에 'Role stress'가 1편(1.6%)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별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을 살펴보면 임금이 23.4%로 가장 높았고 직무만족 17.2%, 업무경력 15.6%, 이직의도 12.5%, 근무부서 및 직업특성 각각 10.9%, 개인성격 9.4% 순이었다.

(Table 5) concept & factors classification (n=64)

Spec.	contents	Total (%)
Key words	Job stress	53(82.8)
	Stress	4(6.3)
	Work stress	4(6.3)
	Occupational stress	2(3.1)
	Role stress	1(1.6)
Related factors	Salary	15(23.4)
	job satisfaction	11(17.2)
	Career	10(15.6)
	Turnover intention	8(12.5)
	Division	7(10.9)
	Job Characteristics	7(10.9)
	Personality	6(9.4)

3.5 직무스트레스 중재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관리 중재를 실시한 연구는 총 3편이었으며, 간호중재법으로는 인지행동요법, 집단 역동적 심상 치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중재전략이 사용되었다<Table 6>.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 역동적 심상 치료를 시행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9], 호텔 근무하는 남성 조

(Table 6) Related characteristic of experimental study

Nursing Intervention	Method & period	Participant (Exp/Con)	Outcome	Researcher
Cognitive behavior therapy	Recognition, To find strength(MBT), (MBT)communication technique, Empty chair, Role play, Imessage, opinion, Communication technique. 8th.	Firefighters (21/20)	No	Nam et al(2013)
Group image psychotherapy	Introduction(15'), Relaxation(10'), Image(20'), Confidence(10'), Analysis(25'), Finish(10'). weekly(90'), 8wks	Nurse (38/39)	Yes	Kim et al(2012)
Stress Management Program	1-2(Introduction), 3(Questionnaire), 4(Appointment), 5(Abdominal breathing , 3/day), 6(Recognition · emotion · behavior therapy), 7(rationalization), 8(argue), 9-11(inurement and application), 11-12(practice and evaluation). weekly(30'), 12 wks	Industrial worker (25/27)	Yes	Lee & Kim(2008)

리사를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서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10]. 그러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방식 점수가 높아지고 우울 점수는 낮아졌으나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낮 아지지 않아 다른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논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 연구 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 및 개선 노력에 의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시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학회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이 1995년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 으며 특히 2010년 이후 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7]의 연구에서 밝 힌,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과거 근로자에 대 한 관점의 변화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 [11, 12]과 더불어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근로자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성에 대한 부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계속 연구자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져 향후 몇 년 동안 중 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연구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9편(60.9%)으 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연구 가 8편(12.5%)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50편 (78.1%)와 비교해볼 때, 비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상자 직업군 은 사업장 근로자 이외에 소방공무원, 생활지도원, 장애인, 및 학교교사에 그쳤다. 이는 간호학 관련 학회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상자군의 범위가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간호행위를 하 는 만큼 앞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외 다 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 자세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관련 연구 내용을 분석 한 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Gu & Kim(1984)의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가장 많 이 사용되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도 구의 이용은 간호사로 하여금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생 리적, 사회적인 개인 안녕 위협상태 및 간호업무 상황에 서 불안, 갈등, 압박감에 대해 측정이 용이하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13]. Chang et al(2005)의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또한 간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KOSS-FV은 물리환경, 직 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 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에 걸쳐 직무 스트 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단축형 직무스트 레스 측정도구인 KOSS-SF은 기본형에서 포함하고 있 는 물리적 환경에 관한 스트레스 측정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인 하부 영역의 단순합산이 가져다줄 수 있는 측정오류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14]. 이는 각 영역별 점수만을 갖고 분석을 할 경우 영역 간 점수의 비교 시에 영역 간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측정도구의 영역은 4-15개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영역을 포함한 것은 Gu & Kim(1984)의 도구로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 부적절한 보상, 부하 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업무 외의 책임, 익숙치 않은 상황, 밤근무에 대하여 63문항에서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업무의 특성상 의료진을 비롯하여 많은 인간관계의 형성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넷째, 직무스트레스 개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job stress' 뿐만 아니라 'stress', 'work stress' 그리고 'occupational stress' 여러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stress'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개인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stress'는 부적절하다고 하였다[15]. 본 연구에서 논문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검토한 결과 'stress'라는 용어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 및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상태 및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등에 대해서도 혼재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 시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비롯하여 개인적 또는 조직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및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직무스트레스 관련요인은 임금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월급 2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의 경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군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경우가 많았으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인 경우 업무

가 어느 정도 숙달된 경력자인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또는 의지와 근무량 및 강도의 불일치는 신체적·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져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16].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의 관심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중재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3편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 중 집단 역동적 심상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데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인지행동요법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및 적용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근무 환경에 대한 통제가 고려되지 않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17]. 산업화로 인해 직업군이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자 직업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중재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학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실험연구의 수는 3편(4.7%)으로 조사연구(73.4%)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간호사는 다양한 직업군의 환자를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인인 만큼 간호학 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직무스트레스 관리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20년간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활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타 학문 분야 연구에 비하여 간호학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사용을 위해 기존에 개발한 도구를 임의 수정하여 사용한 논문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반복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법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관련 요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계 여러 분야의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P. Gray-Toft., J. G. Anderson, The Nursing Stress Scal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Vol. 3, No. 1, pp. 11-23, 1981.
- [2] NIOSH Working Group. "Stress at work." NIOSH Publication No. 99-101, 1999.
- [3] W. S. Cho., M. S. You, Problems and Prospects of Nursing Research on Job Stres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1, pp. 63-75, 2013.
- [4] M. O. Gu., M. J. Kim, An analytical study of work stress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5, No. 3, pp.39-49, 1984.
- [5] D. M. Kang., S. B. Koh., S. A. Kim., S. Y. Kim., Y. J. Kim., J. S. Park, Job stress: Work-related stress.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er, 2005.
- [6] Y. C. Cho., I. S. Kwon., N. K. Bae., J. Y. Park, Effects on the Psychosocial Health Status of Job Stres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6, pp. 2169-2177, 2010.
- [7] J. H. Kim, A Review of Studies the Job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SMIs) conducted from 1991 to 2004.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15-27, 2007.
- [8] K. M. Jeon., K. M. Park, Trends of Research on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among Nurses, Reported in Korea.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2, No. 1, pp. 73-82, 2008.
- [9] S. M. Kim., B. H. Sim., H. R. Ahn, Impact of Group Dynamic Imagery Therapy o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of Female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1, No. 3, pp. 167-175, 2012.
- [10] J. C. Park., J. Y. Park, The Impact of Hotel Employees' Job Stress, Job Insecurity, and Job Satisfaction on Turn over Intention.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Vol. 20, No. 2, pp. 67-86, 2008.
- [11] I. S. Rhie., S. L. Kim, The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on Job Stress in a Hotel Culinary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9, No. 4, pp.611-621, 2008.
- [12] Y. O. Suh., J. S. Park., J. H. Yang., H. W. Kim., M. H. Suk, H. S. Shin,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pp.1013-1019, 2007.
- [13] S. J. Kang,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Relation-oriented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 19, No. 3, pp. 372-381, 2013.
- [14] S. J. Chang,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 Occup Environ Med*, Vol. 17, No. 4, pp.297-317, 2005.
- [15] H. H. Kim., S. N. Y, Occupational Stress of the workers in a Electronic Manufacturing Factory.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2. No. 1, pp.239-246, 2001.
- [16] J. S. Choi., N. Y. Yang, Differences i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eaching style, and personality of precept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349-356, 2011.
- [17] C. Y. Nam., H. S. Kim., S. H. Kwon,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Provid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on Problem-focused Coping. Job Stress, and Depression in Firefight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2 No. 1, pp.12-21, 2013.

저자소개

이 은 연(Eun-Yeon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동명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직무스트레스, 성인간호

손 경 희(Kyung-Hee Shon)

[정회원]



- 198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트레스, 정신간호